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 국내 타당화 연구

이 수 현

숙명여자대학교

서 영 석

건국대학교

김 동 민[†]

중앙대학교

본 연구는 조력기술 수행, 회기관리 및 힘든 상담상황에 대처하는 상담자들의 지각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개발된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를 타당화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대학상담실, 청소년 상담센터, 개인 상담소에서 전문상담자로 활동하고 있거나 수련중인 118명(여자 106명, 남자 12명)의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를 실시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우선,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하위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드러났고(조력기술 3요인, 회기관리 1요인, 상담난제 1요인), 각각의 하위요인이 적절한 신뢰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는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와 높은 상관을, 사회적 정향성 척도와는 낮은 상관을, 상태불안 척도와 중간 이상의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드러나 적절한 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는 상담경험 수준이 다른 상담자들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자 교육 및 훈련, 슈퍼비전, 그리고 향후 연구주제 및 방향에 대한 시사점들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조력기술 자기효능감, 회기관리 자기효능감, 상담난제 자기효능감, 상담자 발달수준, 상담경험 수준

[†] 교신저자 : 김동민,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155-756)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Tel : 02-820-5383, E-mail : dminkim@cau.ac.kr

상담자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되었다. 이러한 노력 중에 반두라(1986, 199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상담자 발달 연구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상담자 자기효능감이 연구주제로서 주목을 받아왔다(Lent, Hill, & Hoffman, 2003). 상담자 자기효능감은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Larson & Daniels, 1998),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상담자 자기효능감은 상담자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례로, 상담자로서의 자기효능감을 확인함으로써 상담자가 발달해야 할 영역들(예를 들어, 관계기술, 사례개념화, 수련생 자신의 미해결과제)을 인식하고 학습하게 한다(March, 2005). 또 다른 측면은, 상담자 자기효능감이 상담자의 인지·정의·행동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Larson, 1998). 예를 들어, 상담자로서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상담자는 힘든 임상장면에서 침착한 태도를 보이며, 힘든 상황을 피하지 않고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Larson, Suzuki, Gillespie, Potenza, Bechtel, & Toulouse, 1992; Lent, Hoffman, Hill, Treistman, Mount, & Singley, 2006).

그러나 상담자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소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혼재한다. 우선, 상담자 자기효능감이 상담자의 수행과 발달수준뿐 아니라 상담성과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Larson과 Daniels(1998)는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면서, (1) 상담자 자기효능감은 상담자의 수행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2) 상담경험이 많은 상담자들은 경험이 적은 상담자들에 비해 자기효능감

이 더 높으며, (3) 상담자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상담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불안은 적다고 요약하고 있다. 또한, 상담실습생들에게 역할놀이, 모델링,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할수록 상담자 자기효능감이 증가함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상담수련생의 자기 효능감이 내담자의 진로상담 성과와 유의미하게 관련된다는 연구결과(Heppner, Multon, Gysbers, Ellis, & Zook, 1998)는 상담자 자기 효능감이 상담과정뿐 아니라 상담성과와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상담자 자기효능감이 상담자 수행에 예언하지 못하고(Johnson, Baker, Kopala, Kiselica, & Thompson, 1989; Ridgway & Sharpley, 1990; Sharpley & Ridgway, 1993), 수련기간과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가 선형적이지 않으며(Johnson & Seem, 1989; Potenza, 1990; Sippes, Sugden, & Faiver, 1988), 특히 수련의 초기 단계를 넘어서면 수련기간과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가 최소화된다는 연구결과(Newcomb & Zinner, 1993; Potenza, 1990) 또한 보고되었다. 이렇듯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혼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담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연구마다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즉, 연구에 따라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조작적 정의가 달랐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달랐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Lent, Hackett, & Brown(1998)은 상담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기존 척도들의 개념적, 이론적 한계들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상담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들이 (1) 신참 수련생들의 지식수준을 초과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2) 자기효능감과 다른 구인(예, 가치)을 측정하는 내용과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3) 보다 숙련이 요구되는 복

잡한 상담기술이나 상담자 역할(예, 우울증이 심한 내담자를 상담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적절히 표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존의 척도들이 상담자 발달이나 조력 기술과 관련된 이론들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었다(Lent et al., 2003).

상담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기존 척도들의 측정학적, 개념적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Lent와 그의 동료들(2003)은 Hill과 O'Brien(1999)의 조력기술모델과 Goodyear와 Guzzardo(2000)의 상담자 기능에 대한 발달적 관점을 기반으로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Counselor Activity Self-Efficacy Scales: CASES)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CASES는 기본적인 조력기술에 대한 자기효능감(조력기술 자기효능감)뿐 아니라, 보다 통합적으로 상담회기를 관리하는 자기효능감(회기관리 자기효능감), 그리고 창의성이 요구되는 힘든 내담자나 위기상황을 관리하는 능력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상담난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조력기술 자기효능감'은 Hill과 O'Brien(1999)의 조력기술모델에 근거해서 비교적 구조화된 조력기술(예, 감정반영)을 수행하는 지각된 능력을 측정한다. '회기관리 자기효능감'은 회기관리와 관련된 상담과업(예, 내담자에 대한 사례개념화)에 대한 능력을 측정하며, 마지막으로 '상담난제 자기효능감'은 비교적 숙련을 요하는 어려운 상담상황(예, 자살충동을 느끼는 내담자)에 대처할 수 있는 지각된 능력을 측정한다. 이러한 개념적 구분은 Goodyear와 Guzzardo가 제시한 상담자의 기능에 대한 발달적 관점과 일치한다. 즉, 초보상담자들은 기초적인 조력기술을 연마하는데 여념이 없고, 상담경력이 증가할수록 상담자들은 보다 힘든 상담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는가

를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지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조력기술 자기효능감과 회기관리 자기효능감은 실습 전 단계 또는 실습단계에 있는 상담수련생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 상담난제 자기효능감은 상담경험이 많고 보다 숙련된 상담자들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기존 척도들의 제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CASES가 개발되었지만, 미국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타당화된 척도가 과연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환경에서 훈련받고 활동 중인 우리나라 상담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즉, 문항구조와 내용의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1) 문화적 이질성을 수반하는 문항들이 존재할 경우 원래 측정하려고 했던 개념 이외의 것을 측정할 가능성이 높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위협받을 수 있고, (2) 따라서 대상과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3) 타당화 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원문을 번역해서 사용할 경우, 우리나라 상담자들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을 개발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사전에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담을 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행위로 이해한다면, CASES를 구성하는 문항들 또한 그런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진 CASES를 문화적 동질성을 가정할 수 없는 우리나라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하는 과정은 타당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상담자 자기효능감 척도 COSE(Counseling Self-Estimate Inventory; Larson, Suzuki, Gillespie, Potenza, Bechtel, & Toulouse,

1992)는 그 사용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COSE는 충분한 측정학적 검토 없이 신뢰도만 보고된 채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수정, 보완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예, 윤정설, 2002; 이윤수, 2001; 홍수현, 2001; 홍지영, 2005; 황인호, 2004). 이런 문제점이 극복된다면 COSE 역시 상담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COSE가 아닌 CASES를 대상으로 타당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CASES가 일종의 상담자 훈련 모델이라 할 수 있는 Hill과 O'Brien(1999)의 조력기술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어서 이를 활용한 연구 결과는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외국에서 개발되고 타당화된 CASES가 우리나라 상담자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동일한 요인구조와 적절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보이는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CASES를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추정치를 조사하고 척도의 요인구조를 살펴보았다. 타당화과정의 일부로써 기존 상담자 발달 척도와와의 관련성, 사회적 정향성 척도와와의 상관, 그리고 상담자들이 느끼는 불안과의 상관을 통해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상담경력을 지니고 있는 상담자들의 자기효능감을 비교함으로써 척도가 상담자의 성장과 상담훈련수준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확인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대학 상담실 7곳, 청소년 상담실 3곳, 개인 상담실 2곳에서 상담수련 중이거나 전문 상담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상담자 14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 배부와 수거에 걸린 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총 144부 중 118부(남자 12명, 여자 106명)가 회수되어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의 개인적 특성과 상담경험수준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남자 상담자에 비해 여자 상담자 비율(89.8%)이 높았고, 연령은 24세에서 62세까지 분포하였다($M = 35.32, SD = 7.79$). 기혼자와 미혼자의 비율은 각각 50%씩 나타났으며, 학력은 석사 졸업(51.7%), 박사 졸업(2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았는데(83.9%) 상담심리사 2급·1급과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한 상담자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타 자격증으로는 기독교 상담 및 심리치료사 1급, 전문상담교사 2급, 행동요법 전문가 2급, 융분석가, 1급 전문상담사(집단상담)등이 있었다. 상담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상담자들 중 46명은 두 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상담경력을 살펴보면 1년-3년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27.6%)을 차지했으며, 10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보고한 상담자도 26.7%로 나타났다. 실제 상담한 사례수를 살펴보면 11-50사례를 보고한 상담자가 가장 많았으며(35.4%), 개인 슈퍼비전을 11회-20회 받았다고 응답한 상담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31.2%). 상담 사례수와 개인 슈퍼비전 횟수에 대한 전체 응답자 수가 적고 사례수나 슈퍼비전 횟수가 많은 상담자의 수가 적은 이유는, 상담경력이 많은 상담자들이 사례수와 슈퍼비전 횟수를

표 1.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 및 상담경험수준

개인특성 및 경험수준		구 분	n (%)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	성별 (N=118)	남자	12 (10.2%)
		여자	106 (89.8%)
	나이 (N=117)	20대	36 (30.8%)
		30대	48 (41%)
		40대	27 (23.1%)
		50대	4 (2.6%)
		60대	2 (1.7%)
	결혼상태 (N=118)	미혼	59 (50%)
		기혼	59 (50%)
	학력 (N=118)	석사과정 및 수료	12 (10.2%)
		석사졸업	61 (51.7%)
		박사과정 및 수료	20 (16.9%)
		박사졸업	25(21.2%)
	자격증 유무(중복응답) (N=118)	상담심리사1급	43 (36.4%)
상담심리사2급		44 (37.2%)	
청소년 상담사 1급		11 (9.3%)	
청소년 상담사 2급		31 (26.2%)	
기타		18 (15.2%)	
없음		19 (16.1%)	
상담자 경험수준	개인 상담 경력 (N=116)	1년 미만	11 (9.5%)
		1년-3년 미만	32 (27.6%)
		3년-5년 미만	20 (17.2%)
		5년-10년 미만	22 (19%)
		10년 이상	31 (26.7%)
상담사례 수 (N=96)	1-10사례	17 (17.7%)	
	11-50사례	35 (35.4%)	
	51-100사례	17 (17.7%)	
	101-300사례	16 (16.7%)	
	301-2000사례	12 (12.5%)	
개인 슈퍼비전 경험(횟수) (N=77)	1-10회	14 (18.2%)	
	11-20회	24 (31.2%)	
	21-30회	19 (24.6%)	
	31-50회	17 (22.1%)	
	51회 이상	3 (3.9%)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측정도구

Counselor Activity Self-Efficacy Scale(CASES)

Lent와 그의 동료들(2003)이 개발한 CASES는 Hill과 O'Brien(1999)의 조력기술 모델, 상담자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기존 척도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e.g., Larson, 1998; Larson & Daniels, 1998; Lent et al., 1998), 그리고 Lent와 그의 동료들의 상담교육자 및 슈퍼바이저로서의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CASES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자기효능감, 즉 조력기술 자기효능감, 회기관리 자기효능감, 상담난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조력기술 자기효능감은 Hill과 O'Brien(1999)의 상담자훈련모델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조력기술을 세 가지 단계(탐색기술, 통찰기술, 활동기술)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상담기술(예, 감정반영)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반면, 회기관리 자기효능감과 상담난제 자기효능감은 상담자 기능의 발달적 관점(Goodyear & Guzzardo, 2000)을 기반으로 개념화하였다. 회기관리 자기효능감은 기본적인 조력기술들을 통합하여 다양한 상담회기 과제들을 처리하는 상담자의 지각된 능력을 의미하고(예, 내담자에 대한 사례개념화), 상담난제 자기효능감은 상담자들이 자주 도전받는 상담상황에 대한 지각된 대처능력과 관련이 있다(예, 임상적으로 우울한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상담하기).

세 개의 자기효능감은 각각 16문항, 15문항, 10문항으로 측정하며, 10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0=전혀 확신하지 않는다, 9=완전히 확

신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관련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nt et al.(2003)은 CASE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요인분석에서는 세 가지 효능감에 대해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조력기술 자기효능감은 3개의 하위요인으로(탐색기술, 통찰기술, 활동기술), 회기관리 자기효능감은 단일 요인으로, 그리고 상담난제 자기효능감은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관계 갈등, 내담자 고통) 구분됨이 확인되었다. 1차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CASES 하위척도들의 잠재적 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2차 요인분석이 실시되었는데, 조력기술 자기효능감 하위척도들과 회기관리 자기효능감 척도가 첫 번째 요인에 적재되고, 두 개의 상담난제 자기효능감 하위척도들이 두 번째 요인으로 적재됨이 확인되었다. 즉, CASES는 크게 두 개의 상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CASES는 상담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Counselor Self-Estimate Inventory, Lent et al., 1992)와의 관련성, 사회적 정향성과의 상관, 그리고 다양한 준거 변인들과의 상관을 통해 적절한 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Lent et al., 2003). CASES 문항 전체의 내적 합치도는 .97, 탐색기술 .79, 통찰기술 .85, 활동기술 .83, 회기관리 .94, 관계 갈등 .92, 내담자 고통 .94로 나타났다(Lent et al., 2003).

본 연구를 위해 Bob Lent로부터 CASES 사용에 대한 허락과 함께 원문을 받은 후, 연구자들이 세 차례의 번안 및 번안 수정작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영어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이중 언어사용자(미국 대학에서 인류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한 1.5세 한국인)가 역번역을 실시하였다. 역

번역된 검사지와 원문을 대조하면서 문항의 의미를 최대한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작업이 재차 시행되었다.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

CASES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심홍섭(1998)이 제작한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0문항 5개의 하위요인, 즉 상담대화기술(10문항), 사례이해(11문항), 알아차리기(9문항), 상담계획(11문항), 인간적·윤리적 태도(9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1점=상당히 일치하지 않는다, 4점=상당히 일치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자로서의 발달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는 슈퍼바이저와 상담자들의 평정을 통해 적절한 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심홍섭, 1998).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상담대화기술 .92, 사례이해 .93, 알아차리기 .91, 상담계획 .92, 인간적·윤리적 태도 .88, 그리고 전체 문항 .98로 나타났다.

사회적 정향성

CASES의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정향성 척도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Crown과 Marlowe(1960)가 개발한 사회적 정향성 척도를 설현수, 김성은, 김동민(2005)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실제로는 발생하기 힘든 행동을 묘사한 18개의 문항(예, 나는 어떤 사람을 심각하게 싫어한 적이 없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묘사한 15개의 문항(예, 나는 누군가를 이용한 경우가 몇 번

있다) 등 총 3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진위형 척도로 ‘예/아니오’로 평정하며, 분석 시 1, 0으로 코딩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9로 나타났다.

상태불안 척도

CASES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자가 느끼는 불안수준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1993)이 번안한 Spielberger, Gorsuch, & Lushene(1970)의 상태-특성 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태불안 20문항, 특성불안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보고식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 낮은 점수는 차분함과 침착한 상태를 의미하고, 중간점수는 긴장과 염려의 적당한 수준을 나타내며, 높은 점수는 공포에 근접한 과도한 염려와 두려움의 상태를 반영한다.

상담자 자기 효능감이 현재 중심적인 인지적 평가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상태불안과의 관계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1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CASE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SPSS 12.0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문항들의 신뢰도 분석과 하위 척도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담자 발달수준, 사회적 정향성, 상태불안과의 상관을 통해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담경험 수준을 나타내는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

기 위해 상관분석과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CASES의 세 차원이 개념적으로 서로 구분되는 효능감이기 때문에, 1차 요인분석에서는 각 차원별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1차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모든 하위척도들을 포괄하는 잠재적 상위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각 하위척도들의 점수를 사용해서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요인분석에서 주축요인추출과 사각회전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구조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 eigenvalue, scree, 설명량 등을 사용하였다. 문항들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요인부하량 .50이상, 요인 간 부하량의 차이 .10 이상을 기준으로, 이를 충족하는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우선, 조력기술 자기효능감 15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세 개의 하위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 활동기술 중 “역할연습과 행동시연” 문항은 활동기술 요인에 대한 부하량 .61, 통찰기술 요인에 대한 부하량 -.59로 두 요인에 대한 부하량의 절대값 차이가 .10 이하로 나타나 문항 선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문항을 삭제한 후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세 요인은 전체 변량의 58%를 설명했으며(탐색기술 43%, 활동기술 9%, 통찰기술 6%), Lent et al.(2003)의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문항들이 관련 요인에 높게 부하된 것으로 나타났

다. 표 2는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두 번째로 회기관리 자기효능감 10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단일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ent et al., (2003)의 연구와 동일하다. 이 요인은 전체 변량의 7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세 번째로 상담난제 자기효능감 16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Lent et al.(2003)의 결과와 비슷한 2-요인 해법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나타난 2-요인 해법을 보다 자세히 검토한 결과 요인들의 초기 고유값 차이가 매우 크고(요인 1 = 9.83, 요인 2 = 1.08), 요인 간 상관이 매우 높으며($r = .78$), 2-요인 해법을 적용했을 경우 문항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는 문항들이 많았고(7 문항), scree 도표를 검토했을 때 단일 요인 구조가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인의 수를 하나로 지정하고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단일 요인 해법은 전체 변량의 5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상담난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과 요인부하량을 제시한 것이다.

요인분석의 마지막 절차로서, CASES 하위척도들을 포괄하는 잠재적 요인 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이 분석은 CASES 하위 척도들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상담자 자기효능감 차원을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척도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각 하위 척도에 속하는 문항들의 점수를 합해서 문항의 수로 나누었는데, 0점에서 9점까지 분포하였다. 5개 하위 척도들의 점수들을 가지고 주축요인추출과 사각회전법을 통해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일 요인 해법이 적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체 변

표 2. 조력기술 자기효능감(Helping Skill Self-Efficacy) 문항과 요인부하량

문항	요인		
	1	2	3
1. 탐색기술			
경청하기(내담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포착하고 이해한다)	.83	.30	-.50
감정반영(내담자의 감정을 강조하면서 내담자의 진술을 반복하거나 바꿔 말해 준다)	.79	.24	-.56
개방형 질문(내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명료화하거나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질문을 한다)	.74	.23	-.63
재 진술하기(내담자가 말한 것을 간결하고 구체적이며 분명하게 반복하거나 바꿔서 말해준다)	.72	.35	-.48
주의기울이기(신체적으로 당신의 몸을 내담자에게로 향한다)	.62	.24	-.30
2. 활동기술			
정보제공(자료, 의견, 사실, 자원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등을 내담자에게 제시하거나 가르친다)	.51	.85	-.38
직접적인 지도(안내)(내담자가 취할 행동을 암시하는 제안, 지시 또는 조언 등을 내담자에게 제공한다)	.30	.82	-.36
과제(내담자가 회기와 회기 사이에 시도할 치료적인 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한다)	.21	.55	-.40
3. 통찰기술			
내담자의 통찰을 위한 상담자 자기 개방(개인적인 통찰을 얻었던 상담자 자신의 과거 경험에 대해 털어놓는다)	.42	.53	-.75
직면(내담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바꾸고 싶어하지 않거나 바꿀 수 없는 불일치, 모순, 방어, 비합리적 신념 등을 지적해준다)	.40	.30	-.74
탐색을 위한 자기 개방(상담자의 성장사, 자격, 혹은 느낌과 같은 사적인 정보를 드러낸다)	.38	.59	-.72
즉시성 (치료적 관계, 내담자와의 관계 또는 내담자에 대한 당신 자신의 즉각적인 느낌을 털어 놓는다)	.53	.27	-.71
의도적인 침묵(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접촉할 수 있도록 침묵한다)	.58	.27	-.70
해석(내담자가 겉으로 말한 것 이상을 얘기해 주어 내담자의 행동, 사고, 느낌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56	.21	-.67

주. N = 118. Kaiser-Meyer-Olkin index = .82. 요인부하량은 사각회전법의 구조행렬을 통해 산출되었다

표 3. 회기관리 자기효능감(Session Management Self-Efficacy) 문항과 요인부하량

문항	요인
내담자가 현실적인 상담목표를 세우도록 돕는다.	.87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 느낌 및 행동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87
회기 중 당신의 의도(즉, 개입 목적)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85
상담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상담회기의 흐름을 유지하고 초점을 맞춘다.	.84
내담자가 말한 다음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또는 어떻게 해야할지 안다.	.84
내담자가 자신의 사고, 느낌 및 행동을 탐색하도록 돕는다.	.84
매 순간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것에 기초해 최선의 노력기술로 반응한다.	.84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하도록 돕는다.	.83
내담자 및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명확히 사례 개념화를 한다.	.81
내담자가 “깊은” 수준에서 자신의 고민거리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돕는다.	.80

주. N = 118. Kaiser-Meyer-Olkin index = .93.

표 4. 상담난제 자기효능감(Counseling Challenges Self-Efficacy) 문항과 요인부하량

문항	요인
당신에게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내담자	.87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내담자	.83
심각한 사고 혼란의 징후를 보이는 내담자	.82
최근 외상적 생활사건(신체적, 심리적 상처 혹은 학대)을 경험한 내담자	.81
성적으로 끌리는 내담자	.80
회기 중 교묘하게 당신을 통제하고 당신에게 영향을 행사하려는 내담자	.79
상담자 개인적으로도 다루기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	.79
당신이 제공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내담자(만남의 횟수, 문제해결 등)	.77
상담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내담자	.77
성적으로 학대를 받아온 내담자	.76
극도로 불안한 내담자	.75
당신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반응(예, 지루함, 성가심)을 갖게 만드는 내담자	.73
당신과 현저하게 다른 내담자(예, 인종, 민족, 성별, 나이, 사회계층 등)	.71
자신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혹은 스스로를 성찰하지 못하는 내담자	.71
임상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	.68
당신의 가치나 믿음과 충돌되는 핵심적인 가치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내담자(예, 종교, 성역할)	.68

주. N = 118. Kaiser-Meyer-Olkin index = .92.

변량의 64%를 설명하였다. 각 하위척도의 요인부하량은 회기관리 .96, 통찰기술 .86, 상담난제 .80, 탐색기술 .79, 활동기술 .54로 나타났다.

신뢰도 추정치 및 하위 요인 간 상관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CASES 각 하위척도 간 상관계수, 평균값 및 표준편차, 그리고 신뢰도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표 5는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CASES 하위척도 간 상관은 .36~.80까지 분포하여, 하위척도들이 중복되면서도 다소 다른 측면의 상담자 자기효능감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뢰도 추정치 α 는 .79~.96까지 분포하여 적절한 문항 내적일치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

CASES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자 발달수준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우선, CASES 전체 점수는 상담자 발달수준 전체 점수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비슷한 개념을 측정할 것으로 판단되는 척도들 간에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예, 탐색기술과 대화

기술, $r = .71$; 통찰기술과 알아차리기, $r = .70$; 회기관리와 상담계획, $r = .81$). CASES 하위척도들과 사회적 정향성 척도와의 상관은 .21~.32로 $\alpha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Lent 등(2003)의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ASES 하위척도들이 사회적 정향성과 공유하는 변량은 약 4%~9%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성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CASES 척도들이 적절한 수준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CASES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태불안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중간 혹은 그 이상의 부적 상관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즉, 상담자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불안을 덜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은 상담자 자기효능감 척도와 준거 변인들간의 상관을 나타낸 것이다.

CASES와 상담경험수준(상담경력, 상담사례 수, 개인 수퍼비전 횟수, 상담 자격증)

CASES가 상담자 발달수준에 민감한지를 살

표 5. CASES 척도들의 상관, 평균 및 신뢰도 추정치

척도	1	2	3	4	5	6	M	SD	α
1. 탐색기술	-						6.72	1.14	.86
2. 통찰기술	.68**	-					6.05	1.44	.87
3. 활동기술	.41**	.52**	-				5.73	1.54	.79
4. 회기관리	.78**	.74**	.54**	-			6.41	1.37	.96
5. 상담난제	.62**	.72**	.36**	.80**	-		4.99	1.50	.96
6. CASES 전체	.78**	.86**	.56**	.94**	.93**	-	5.78	1.24	.97

** $p < .01$.

표 6. 상담자 자기효능감 척도와 준거 변인들과의 상관

CASES 척도	상담자 발달수준						사회적 정향성	상태불안
	대화기술	사례이해	알아차리기	상담계획	태도	전체		
탐색기술	.71**	.72**	.69**	.65**	.59**	.72**	.32**	-.48**
통찰기술	.67**	.66**	.70**	.70**	.56**	.70**	.25**	-.46**
활동기술	.33**	.37**	.33**	.46**	.33**	.39**	.28**	-.23**
회기관리	.81**	.79**	.81**	.81**	.69**	.84**	.32**	-.58**
상담난제	.72**	.71**	.73**	.70**	.64**	.75**	.21*	-.56**
CASES 전체	.80**	.79**	.81**	.80**	.70**	.83**	.29**	-.59**

** $p < .01$.

펴보기 위해, 우선 CASES 하위척도들과 상담 경험수준을 나타내는 상담경력(개월), 상담사례 수, 개인 수퍼비전 횟수와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활동기술과 상담경력 및 수퍼비전 횟수를 제외하면 상담관련 경험이 증가할수록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은 CASES와 상담경험과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상담자의 자격증 종류에 따라 상담자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격증 종류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CASES 하위척도들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변

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격증 종류에 따라 하위척도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F(10, 222) = 7.49$, Wilks's lambda = .56, $p < .001$. 일변량분석 결과, 활동기술을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들에 대해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일변량분석 결과에 대한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찰기술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탐색기술, 회기관리, 상담난제 하위척도에 대해서는 1급과 나머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8은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7. CASES와 상담경험과의 상관계수

척도	상담경력(개월)	개인 수퍼비전 횟수	상담사례 수
탐색기술	.59**	.24*	.42**
통찰기술	.55**	.30**	.44**
활동기술	.16	.06	.25*
회기관리	.58**	.27*	.42**
상담난제	.57**	.36**	.35**
CASES 전체 점수	.61**	.33**	.43**

* $p < .05$. ** $p < .01$.

표 8. 자격증에 따른 상담자 자기효능감

척도	1급 (n = 43)		2급 (n = 46)		자격증 없음 (n = 29)		F(2, 115)	Bonferroni
	M	SD	M	SD	M	SD		
	탐색기술	7.46	0.88	6.23	0.97	6.41		
통찰기술	6.97	1.02	5.24	1.18	5.98	1.58	21.64***	1급>없음>2급 *
활동기술	5.88	1.75	5.51	1.39	5.87	1.50	0.76	유의하지 않음
회기관리	7.33	0.96	5.75	1.22	6.10	1.41	21.27***	1급>2급, 없음 *
상담난제	6.01	1.02	4.41	1.33	4.39	1.58	20.88***	1급>2급, 없음 *

* $p < .05$. *** $p < .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Lent et al. (2003)이 개발한 CASES가 우리나라 상담자들의 상담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데에도 타당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역번역 과정을 거쳐 CASES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이를 수련초기의 상담자부터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자들에까지 다양한 상담경력을 소유한 상담자들에게 실시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 CASES의 요인구조를 파악하였고, 다른 준거변인들과의 상관패턴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 CASES는 두 가지 세부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는 영문 CASES와 동일한 요인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자발달수준척도, 사회적 정향성 척도, 상태불안 척도 등과의 상관패턴도 기대했던 방향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CASES 전체 척도 및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본 결과, 영문 CASES와 마찬가지로 높은 내적합치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CASES가 한국 상담자들의 상담 자기효능감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하나의

예비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요인분석 결과는 세부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그것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한국어 CASES의 조력기술 자기효능감 하위척도에서는 탐색기술 요인이 전체 변량의 약 43%를 설명하는 제 1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찰기술 요인이 전체 변량의 43%를 설명하는 제 1요인으로 나타난 Lent et al., (2003)의 결과와 매우 다른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다. 상담자들의 조력기술에 있어서 강조되는 측면이 두 문화에서 다른 것인지, 아니면 두 나라 간 상담자들의 발달수준이 다른 것인지는 본 연구의 자료만으로는 실증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다만, 각 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들로 구성된 조력기술 하위척도 상호간 상관성이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 상담자들이 주로 통찰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두 조력기술에 대한 효능감을 지각하는 반면, 우리나라 상담자들은 주로 탐색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두 조력기술에 대한 효능감을 지각할 것으로 추측된다. 과연 이러한 추측이 타당한

지를 확인하고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상담자 교육 및 훈련의 차이점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요인분석 결과 조력기술 자기효능감의 하위 문항 중 “역할연습과 행동시연”은 문항선정기준에 미달하여 추후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역할연습과 행동시연은 활동기술 문항으로 회기 중 내담자가 역할연습을 하거나 행동을 시연해 볼 수 있도록 돕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한국어 CASES의 요인 분석결과 활동기술 자기효능감 측정을 위한 문항은 정보제공, 직접적인 지도, 과제를 제시하고 가르치는 정적인 활동들이다. 반면 역할연습과 행동시연은 예기되는 상황을 연기를 통해 가르치는 매우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행동기술이다. 추후 연구에서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역할연습이나 행동시연이 통찰기술 요인에 대해서도 높은 부하량을 갖는 것으로 드러난 점을 고려한다면 많은 한국 상담자들이 이 기술을 통찰을 위한 기법으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역할연습이나 행동시연을 구체적 행동 그 자체를 실행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인지적 통찰을 위한 도구적 기술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측의 타당성은 추후 연구를 통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상담난제 자기효능감 문항(16개)을 요인분석한 결과, Lent et al.(2003)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내담자 어려움과 관계갈등 두 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두 요인으로 정의했을 때 일곱 문항이 문항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해 탈락되었고, 이 중 몇 문항은 원래의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더 많은

부하량을 보였다. 더욱이 두 요인 간 상관도 .78로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담난제 자기효능감을 단일요인으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재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문항의 부하량이 .68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단일요인이 적절함을 시사하였다.

상담난제 자기효능감 척도와 관련하여 Lent et al. (2003)의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탐색해보기 위해 주요 분석 이후에 상담 관련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상담자들과 2급 및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담자들을 구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집단을 나누어 각각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상담난제 자기효능감 척도가 상담경험이 많은 상담자들이 자주 경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초보 상담자들이 상담난제 문항의 의미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1급 자격증 소지자들만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했을 때, 상담난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었다. 특히, 자격증 종류와 상관없이 전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했을 때 탈락했던 7개 문항 중 6개 문항이 원래 기대했던 하위요인에 적재되었다. 반면, 2급 자격증 소지자들과 자격증이 없는 상담자들만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했을 때, 10개의 문항들이 제1요인에 높게 적재되었으며, 3문항은 두 요인 모두에 높은 부하량을 보였고, 3문항만이 제 2요인에 더 높게 적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간 상관도 -.68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련수준이 높은 상담자들의 경우 Lent et al.(2003)의 결과와 동일한 2요인이 적절하지만, 수련수준이 낮은 상담자들의 경우 단일요인이 적절함을 의미한다.

이는 수련수준이 낮은 상담자들은 내담자와의 관계갈등에서 오는 어려움과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에 기인한 어려움을 잘 구분하지 못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어 CASES와 다른 준거변인과의 관계에서 드러난 한 가지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Lent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CASES 전체 척도 및 하위척도들이 사회적 정향성과 비교적 낮고 유의하지 않은 상관(.02 ~ .22)을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21 ~ .32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상담자들에 비해 우리나라 상담자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는 경향이 상담자로서의 효능감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함에 있어서 자신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속성을 제외하면 무엇이 남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보면,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결과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자기효능감에서 자신의 실제 수행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배제된다면 결국 객관적 평가만이 남게 될 것이고, 정의상 이를 자기효능감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CASES가 사회적 정향성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이유로 척도의 사용이 제한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한국어 CASES에 대한 연구결과는 현재까지 상담자들의 자기효능감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상담자들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표본의 사례수

가 작아 교차타당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모든 상담자들에게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즉, 피험자 표집과정 이 서울과 경기지역에 편파 되었으며 남녀 상담자 성비 또한 차이가 크다. 둘째, 한국어 CASES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준거로 자기 보고식 질문지인 상담자발달수준 척도, 사회적 정향성 척도, 상태불안 척도를 사용했는데, 방법변량(method variance)을 통제하지 못해 변인 간 상관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준거관련 타당도를 보기 위해 상태불안과의 상관을 살펴 보았지만 상담장면으로 구체화시키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즉, 불안척도 평정시 '상담을 하는 동안에 느끼는 불안'이라는 지시문을 주지 못하여 이 척도의 평정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상담자 자기효능감은 상담성과 및 상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Larson et al., 1992), 일반적인 상담자 교육 및 슈퍼비전을 통해 개발되는 수련생 특성 중 하나이다(Goodyear & Bernard, 1998). 실제, 많은 연구들은 상담자 교육 및 임상수련과 함께 효능감이 증가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으며(e. g., Johnson et al., 1989; Larson et al., 1998; Larson et al., 1992; Melchert, Hays, Wiljanen & Kolocek, 1996), 훈련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효능감이 발달한다는 연구결과 또한 보고되었다(Urbani, Smith, Maddux, Smaby, Torres-Rivera, & Crews, 2002). 그러나 구체적으로 상담자 자기효능감이 상담자 교육 및 슈퍼비전을 통해 어떻게 발달하며, 역으로 상담 및 슈퍼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나아가 상담자 자기효능감이 현재의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련 및 교육과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길러지는 것인지 등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더구나 서로 다른 발달단계에 있는 수련생에 대한 서로 다른 교육방법이 상담자로서의 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와 같은 보다 세분화된 질문에 대해서는 더욱 정보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영문 CASES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CASES가 한국 상담자들에게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설현수, 김성은, 김동민 (2005). Rasch 모형을 이용한 Marlowe-Crowne의 사회적 정향성 척도 타당화. *교육평가연구*, 18, 101-123.
- 심홍섭 (1998). 상담자 발달 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윤정설 (2002). 상담자의 성격특성 및 경력이 역전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수 (2001).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관리 능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 (1993). Spielberger 상태-특성 불안 검사의 표준화. 한국심리학회 '93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 홍수현 (2001). 상담 초기단계에서 상담자 자기효능감 및 상태불안이 상담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지영 (2005). 슈퍼바이저 스타일이 슈퍼비전 과정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인호 (2004).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행동 및 상담협력관계가 상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Crowne, D. P., & Marlowe, D. (1960). A new scale of social desirability independent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4, 349-354.
- Goodyear, R. K., & Bernard, J. M. (1998). Clinical supervision: Lesson from the literature.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8, 6-22.
- Goodyear, R. K., & Guzzardo, C. R. (2000). Psychotherapy supervision and training.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3rd ed., pp. 83-108). New York: Wiley.
- Heppner, M. J., Multon, K. D., Gysners, N. C., Ellis, C. A., & Zook, C. E. (1998). The relationship of training self-efficacy to the process and outcome of caree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393-402.
- Heppner, M. J., O'Brien, K. M., Hinkelman, J.

- M., & Flores, L. Y. (1996). Training counseling psychologists in career development: Are we our own worst enemi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4, 105-125.
- Hill, C. E., & O'Brien, K. M. (1999). *Helping skills: Facilitating exploration, insight, and ac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Johnson, E., Baker, S. B., Kopala, M., Kiselica, M. S., & Thompson, E. C. (1989). Counseling self-efficacy and counseling competence in prepracticum training,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28, 205-218.
- Johnson, E., & Seem, S. R. (1989). *Supervisory style and the development of self-efficacy in counseling training*.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Orleans.
- Larson, L. M. (1998). The social cognitive model of counselor train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6, 219-273.
- Larson, L. M., Suzuki, L. A., Gillespie, K. N., Potenza, M. T., Bechtel, M. A., & Toulouse, A. (199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unseling Self-Efficacy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105-120.
- Larson, L. M., & Daniels, J. A. (1998). Review of the Counseling Self-Efficacy Literatur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6, 179-218.
- Lent, R. W., Hill, C. E., & Hoffman, M. A.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unselor activity self-efficacy sca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97-108.
- Lent, R. W., Hackett, G., & Brown, S. D. (1998). Extending social cognitive theory to counselor training: Problem and prospec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6, 295-306.
- Lent, R. W., Hoffman, M. A., Hill, C. E., Treistman, D., Mount, M. & Singley, D. (2006). Client-specific counselor self-efficacy in novice counselors: Relation to perceptions of session qua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 453-463.
- March, D. F.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sclosure, self-efficacy, and the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of counselor education practicum and internship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Orlando, Florida.
- Melchert, T. P., Hays, V. L., Wiljanen, L. M., & Kolocek, A. K. (1996). Testing models of counselor development with a measure of counseling self-efficac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 640-644.
- Newcomb, D. C., & Zinner, E. S. (1993). *A normative study utilizing the Counseling Self-Estimate Inventory*. Unpublished manuscript.
- Potenza, M. T. (1990). *The impact of experience, supervision, and educational agree on counselor perceptions of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braska, Lincoln.
- Ridgway, I. R., & Sharpley, G. F. (1990). Multiple Measures for the prediction of counselor trainee effectiveness. *Canadian Journal of Counseling*, 24, 165-177.
- Sharpley, G. F., & Ridgway, I. R. (1993). An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self-efficacy as a predictor of trainees' counseling skills

-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21, 73-81.
- Sipps, G. J., Sugden, G. J., & Faiver, C. M. (1988). Counselor training level and verbal response type: Their relationship to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397-401.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Urbani, S., Smith, M. R., Maddux, C. D., Smaby, M. H., Torres-Rivera, E., & Crews, J. (2002). Skills-based training and counseling self-efficacy.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2, 92-106.
- 원 고 집 수 일 : 2007. 6. 14
수정원고접수일 : 2007. 7. 15
게 재 결 정 일 : 2007. 8. 1

Validation of the Counselor Activity Self-Efficacy Scales

Suhyun Le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Young Seok Seo

Konkuk University

Dongmin Kim

Chung-ang University

The Counselor Activity Self-Efficacy Scales, which had been developed to assess self-efficacy for performing helping skills, managing the counseling process, and handling challenging counseling situations, were validated using 118 counselors(106 females, 12 males) who were working at university counseling centers, local youth counseling centers, and private counseling facilities in Seoul and Kyungki areas. Exploratory factor analyses yielded 5 factors(3 helping skills, 1 session management, 1 counseling challenges), and each factor produced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Factor-derived scale scores were strongly related to scores on a measure of level of counselor development, moderately related to social desirability, negatively related to state anxiety, and able to differentiate among counselors with differing levels of counseling experienc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training applications are considered.

Key words : *helping skills self-efficacy, session management self-efficacy, counseling challenges self-efficacy, counselor development level, counseling experience level*